

ACC서 열리는 이주 작가들의 이색 도자기 전시

첫 도예전 '길위에 도자' 개막

7월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6관 이주 관점서 현대도에 조명 화제 참여 작가 조선대서 창제작 눈길

깨지고 찌그러진 도자기에도 미학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18일 현대 도예 전시 '길 위에 도자' 개막식을 열고 7월 28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6관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이번 전시는 설치 및 미디어 매체 전시를 주로 선보이는 ACC에서 진행되는 첫 도예 전시로 아시아에서 이주한 도예의 전개 양상을 현대 미술로 새롭게 해석해 소개한다. ACC가 아시아를 주제로 다양한 담론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아시아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시는 이주의 경험을 가진 작가들을 통해 아시아 외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대 도자를 조명한다.

전시는 '스티븐 영 리(한국계 미국)', '린다 응우옌 로페즈(베트남-멕시코계 미국)', '세 오(한국계 미국)', '에이미 리 샌포드(캄보디아계 미국)' 등 4인이 참여한다. 참여 작가는 이민 2세대 혹은 입양

과 같은 개인의 이주 서사에서 비롯한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 탐구 맥락에서 자신의 서사를 도자에 담아낸다. 도예의 양식사적 접근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흘러온 이주 현상을 통해 현대 도예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

특히 스티븐 영 리, 린다 응우옌 로페즈, 세 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미국을 떠나 광주지역에 있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일부 작품을 창·제작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스티븐 영 리 작가는 부모님이 한국인으로 이민 2세대 도예 작가다. 미국의 명망 있는 도예 기관인 아치 브레이 도자재단의 아트 디렉터를 16년간 역임했다. 작가는 도자의 기형을 깨트려 완벽한 균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도자의 전통적인 관습에 도전하는 작업을 한국의 전통 도자 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문양을 사용해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에서 2주간 머물며 제작한 3점과 미국에서 제작한 4점을 더해 총 7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스티븐 영 리 작가는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 '해체' 시리즈로 한국의 전통적인 그릇을 기반으로 제작했다"며 "일부 작품을 광주에서 창·제작해 한국의 유약으로 만든 작품이 한국에 선보여지는 것이 몹



스티븐 영 리 작 마징가Z아프로디테A무늬 항아리.

김양배 기자

시 설레인다"고 말했다.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가는 유년시절 부모님의 이민배경에서 오는 언어적 어려움을 계기로 일상의 매우 사소하고 주변적인 사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대결레나 먼지 등을 의인화한 도자 조각들을 제작

해 오고 있다. 광주에서 창작한 3점의 '털 복숭이 먼지' 시리즈와 관람객들이 직접 앉을 수 있는 의자형 도자 조각 4점 등 총 7점의 신작이 관람객을 맞는다.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가는 "광주에 와 기쁘고 조선대에서 시리즈 '먼지' 작품을

제작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작품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변 것을 추상적으로 담아냈다"고 말했다.

세 오 작가는 주로 자연의 형태에서 모티프를 차용하고 재료적으로는 한국의 고려청자 유약을 사용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도자에 녹여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정(精)원'을 포함해 다수의 작품이 광주의 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흙을 사용해 창작됐다.

세 오 작가는 "전시 주제는 '도자 정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본토의 꽃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꽃을 이용해 작업했다"면서 "한국의 흙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태어난 곳의 흙으로 만든 작품이 어떻게 보여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이미 리 샌포드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도예로 표현하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도자 관련 퍼포먼스 영상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해외 유명 도예 작가가 도자의 고장인 한국을 찾아 한국의 흙을 경험하고 이를 사용해 도자를 빚어낸다는 점이 뜻깊다"면서 "'길 위에 도자'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이주 예술가를 이해하고 현대 도예의 경험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시립미술관, 초중고생 대상 학생미술대전

29일부터 1차 90점 선별

광주시립미술관은 (사)광주미술관회와 광주 초·중·고생 미술 역량 강화·인재 양성 거점 마련을 위해 ㈜광주신세계 후원을 받아 '광주학생미술대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미술대전은 광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 5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주제 '환경', '나의 꿈', '가족' 중 1가지를 선택해 4절지 도화지에 재료 제한없이 그림을 그려 촬영한 작품 사진(파일), 신청서 등을 1차 온라인(이메일 artmo2mo@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선정된 작품 사진(파일) 90점에 한해서 원본 그림을 5월11일부터 5월14일 오후 6시까지 시립미술관 안내데스크

에 2차 접수하면 된다. 대회 일정과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062-531-8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1차 및 2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60점은 5월 21일 광주시립미술관·(사)광주미술관회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내역은 대상 4점(초2·중1·고1·광주시장상), 최우수상 4점(초2·중1·고1·광주시장상),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특선 14점, 입선 30점 등이다. 시상식은 추후 개별 공지·개최할 계획이다.

수상작 60점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광주신세계에서 31일~6월9일 전시회를 연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문화예술계 미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미술을 좋아하고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회다"며 "미술 인재양성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교향악단 키즈콘서트 '플라잉 심포니'

내달 3일부터 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키즈콘서트 '플라잉 심포니'를 개최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김동준과 정세화가 함께한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는 동물의 특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13개 모음곡으로 구성돼 있다. 등장하는 주인공은 플루트, 오보에, 바순 등 위트 넘치는 악기로 표현된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피아노 각 악기를 보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과 친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연주되는 차이콥스키 '호두까

기 인형'은 발레 음악으로 친근한 작품이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8개의 모음곡환상적인 애니메이션과 함께 연주되는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꿈꾸는 듯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키즈콘서트 'Flying Symphony'는 클래식 음악에 최적화된 3D애니메이션과 대면성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클래식 음악 지식을 놀이로 전달하며, 아이들은 놀이와 배움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공연은 총 4차례 (5월3일 오후3시·5월4일 오전11시·오후3시, 5월5일 오후3시) 진행되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4월 청명·곡우 맞아 무등풍류 던 '얼씨구'

내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무등풍류 던 4월 행사 '청명하니, 싹 움트네'와 토요일공연 2회차 공연 '예술단다드미의 쌍채복춤 통고동락'이 20일 펼쳐진다.

무등풍류 던은 절기와 명절 등을 주제로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등풍류 던 4월 행사 '청명하니, 싹 움트네'는 하늘이 맑아지고 봄비가 내려 백곡이 기뻐지다는 절기 '청명'과 '곡우'를 맞아 △1시부터 전통문화관 입석당에서 아이들을 위한 전래동화 '나무그늘을 산 총각'을 구연한다. 구연이 끝나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나무액자 만들기' 체험으로 이어져 가족 나들이로 제격이다. 행사는 무료이며, 선착순 40명 한정으로 전화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숲을대문과 너털마당 일대에서는 1시부터 민속놀이와 한복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체험 행사가 끝나고 3시부터 너털마당에서 펼쳐지는 토요일공연 2회차 무대에는 '예술단다드미(대표 강영순)'가 출현



20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무등풍류 던 4월 행사와 함께 예술단 다드미의 공연이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한다. '예술단 다드미'는 우리 전통문화인 쌍채복춤의 전통 계승을 위해 창단된 전통예술 단체다.

이번 무대에서 '쌍채복춤의 통고동락'을 주제로 △전통 풍물놀이를 심화, 발전시킨 음악으로 느리고 빠른 장단과 다양한 리듬을 즉흥적으로 구사하면서 맺고 푸는 역동성을 표출해 내는 삼도사물놀이 △30센치 크기의 둥근 나무판을 앵두나무 채로 돌려 다양한 기예를 보여주는 베나놀이 △독무와 군무의 형태로 발전돼왔으며 앉아서 연주하는 장고인 삼도앉은반설장고 △벼슬에 오르지 못한 의기 있는 사나이의 별명을 뜻하는 춤사위와 디딤

새가 특징인 고 임이조 선생님의 작품 한량무 △무형문화재 제18호 양태유류와 무형문화재 제39호 진도 소포길 군농악 설복 김내식류를 박병주씨가 정리해 연출한 작품 쌍채복춤 등 다섯 가지의 다양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방문객 대상 오프라인 설문 이벤트도 진행한다. 토요일 전통문화관에서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회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

